

본문말씀

창세기 25장~28장



제 25 장

아브라함이 죽다

- 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
 - 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
 -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
 -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
 -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
 -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
 -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
 -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
 -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
 -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
 -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
- #### 이스마엘의 후예
-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
 -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
 -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

- 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
-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
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
-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
백성에게로 돌아갔고
- 18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
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
-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
-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
이삭을 낳았고
-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
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
중 라반의 누이였더라
-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
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
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
-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
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
-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
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
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
-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
-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
하였고
-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
이름을 1)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
육십 세였더라
-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
-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
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
-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

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

-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
-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
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2)에돔이더라
-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
-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
무엇이 유익하리요
-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
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
-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
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던더라

제 26 장

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

- 1 아브라함 때에 첫 흥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흥년이 들매
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
-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
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
-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
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
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
-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
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
받으리라
-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
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
- 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
- 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
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
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
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

- 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
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
- 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
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
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으로라
-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
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
우리에게 입혔으리라
-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
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
-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
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
-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
-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
그를 시기하여
-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
막고 흙으로 메웠더라
-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
우리를 떠나라
-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
거류하며
-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
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
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
불렀더라
-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
-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
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
1)에섹이라 하였으며
-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
2)싯나라 하였으며

-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
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3)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
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
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
-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
-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
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
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
하리라 하신지라
-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,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거기
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
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
-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
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
-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
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
- 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
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
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
-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
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
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
- 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
- 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
그들이 평안히 갔더라
- 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
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
- 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
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
-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
- 34 에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

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
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

제 27 장

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

-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
- 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
-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
-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
-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
- 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
-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
- 8 그런즉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
-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
- 10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
-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
-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
-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

- 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
-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
-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
-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
-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냐 내가 누구냐
-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
-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
-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
-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
-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
- 24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
-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
-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
-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

주신 발의 향취로다

-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
-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
-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
-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
-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
-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
-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
-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
-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
-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
-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

-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
-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
-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
-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
- 43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
-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
-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
-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
-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

제 28 장

-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
-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
-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
-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

-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
-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
-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
-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
-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
-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
-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
- 야곱이 벵엘에서 꿈을 꾸다
-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
-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
-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
-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
-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
-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
-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

알지 못하였도다

-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
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
-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
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
- 19 그 곳 이름을 1)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
루스더라
-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
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
-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
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
-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
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
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